

“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 종합건설업 생존권 호소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 제출... “2027년 상호시장 개방 예정대로 시행해야”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업계의 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반대하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호소’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호소’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금액 상향과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

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4억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제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합업

체는 상당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된 보호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종합건설업체 역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했

다. 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약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에는 전체 업체 중 약 15%에 해당하는 2,600여 개 업체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소재철은 “전문업계 보호기간이 또 다시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종합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협회 관계자들은 2018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진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예정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2027년 1월부터 상호시장 개방을 정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은 12일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협 정례조회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 수상

전주농협, 전북 최초 상호금융 대출금 1조5천억원 달성

전주농협이 전북 지역 농축협 가운데 처음으로 상호금융대출금 1조5천억 원을 달성했다.

전주농협은 12일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협 정례조회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농협 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신용사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주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을 대

상으로 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과 안정적인 여신 관리 등을 통해 이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인규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들의 신뢰, 임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기계은행 확대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앞장”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는 12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산하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는 12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을 의결했다. 신규 가입 농협은 군산농협, 서군산농협, 옥구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서익산농협, 성당농협, 북전주농협, 백운농협 등 9곳이다.

/오상근 기자

참석자들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은행 중심의 일관 농업대행 참여 농협을 지속 확대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서비스 및 정부 연계 사업을 통한 발농업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훈 협의회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일관 농업대행과 발농업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실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훈은 “농기계은행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애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농업 지원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협의회 농협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진원·북전주세무서, ‘찾아가는 세무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희망센터가 북전주세무서와 함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세무서 1:1 멘토링 및 교육’을 운영했다. 경진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프로그램이 초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세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북전주세무서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희망센터를 찾아 기업별 상황

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 형태로 진행됐다. 멘토링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절세 전략, 세제 혜택 등 창업 초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고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참여 기업들은 평소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했던 세무 이슈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도내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차전지 및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도내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3억6,500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투자 및 IPO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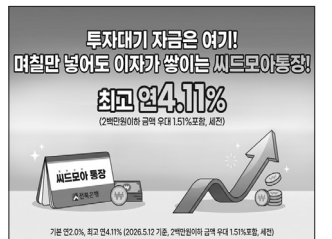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특별금리 이벤트

첫 거래 고객에 최고 연 4.11%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4.11% 금리를 제공하는 ‘씨드모아 통장’ 우대금리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금리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단기 여유자금이나 투자 대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씨드모아 통장’은 매일 잔액 기준 연 2.0%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여기에 △마케팅 동의 시 0.6% △매일 최종잔액 200만원 이하 구간 1.51% △200만원 초과 구간 0.51%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11%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된다.

특히 우대금리가 특정 금액 구간에만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20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 모두에 각각 우대금리가 적용돼 전체 잔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첫 거래 고객이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 형태로 운영된다. 단기 자금 운용과 비상자금 관리에 적합해 투자 연계 자금 관리 수단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을 묶지 않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 앱 ‘속뱅크’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